

오늘 우리에게 李光洙는 누구인가

탄생 백주년 맞아 재평가 작업 활기...기념관 건립도 추진

올해는 “우리 근대문학의 開拓者” “親日 지식인의 대표” 등 양극단으로 명암이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 아직도 그 위상이 올바르게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는 春園 이광수(1892~1950)가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후대 평자들에 의해 “만지면 만질수록 그 증세가 더나는 상처와도 같다”는 절묘한 진행형의 표현이 그의 삶과 문학의 현재를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春園의 탄생일(음력 2월1일)을 즈음해 재평가 작업이 문단과 학계, 출판계를 아우르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춘원기념사업회 주최 기념강연 열려

춘원기념사업회(회장 安秉煜)는 지난 3일 ‘춘원탄생 100주년 기념강연회’를 시작으로 그를 문학사적으로 복원하는 연중행사를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다. 「이광수전집」을 비롯하여 춘원의 작품·저작만을 집중해서 펴내고 있는 도서출판 우신사(대표 노양환)는 춘원기념사업회와 함께 올 주요사업으로 춘원이 월북하기 전 칩거했던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에 있는 思陵農屋을 개축하여 춘원기념관을 건립하는 한편, 79년 내렸던 전집을 보완 새로 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춘원문학상, 무정문학회 등을 제정 발족하는 한편 「춘원이광수 전기」와 「李光洙 事典」도 간행할 예정이며, 기념유품·사진전도 올 4월 열 계획.

그 첫 행사로 유족과 문인, 학자, 각계인사 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3일 열렸던 ‘春園탄생1백주년강연회’에는 국문학자 김윤식(서울대)교수와 일본학자 三枝壽勝(동경의 국어대)씨, 김동길(전원세대) 이어령(전이화여대) 교수가 나와, 우리 신문학의 개화를 연 선구자이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다간 춘원의 삶과 문학을 새롭게 살폈다.

이 자리에서 김윤식 교수는 ‘춘원의 생애와 사상’ 주제강연에서 ▲3가지 사상적 측면 ▲고아의식으로서의 문학 ▲동우회와 민족주의의 관련양상 ▲고아의식 초극방식의 일관성 등 4가지 틀로 춘원을 재조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춘원의 삶과 문학을 구성했던 3개의 인자로서 고아의식, 동학, 불교를 꼽았다. 11살 때 부모를 콜레라로 잃고 남의 도움으로 동경 유학까지 할 수 있었던 춘원의 개인사와 국권상실의 현대사가 같이 맞물려 춘원문학의 밑바닥에는 고아의식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광수 문학의 중심과제란 고아의식의

극복”이라 요약하는 김교수는 “이 고아의식의 극복이 그의 개인사의 과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국권상실시대의 요청 그 자체였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를 단순한 작가로 멈추게 하지 않은 참된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한다. 따라서 한국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인 「무정」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신세대의 민족주의와 계몽주의를 대변한 문학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의 초기세계관을 지배했던 동학사상이나 뒤이은 불교의 종교적 세계관은 바로 이같은 근원정서인 고아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모색의 축으로 분석된다는 것.

국내학자들 못지않게 춘원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해온 바 있는 三枝壽勝씨는 ‘시대상황과 이광수’ 강연에서 일제말기의 시대상황과 친일행각에 따른 춘원의 내면을 「나의 고백」 등 문건을 통해 유추했다. “역설적이게도 너무 우직스럽고 성실하였기에 끝까지 끌려들어가고 철저한 극단에까지 빠졌던 것이 아니었을까. 약삭빠르게 굴고 요령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는 일이었다”면서 일본국가주의를 받아들인 친일행각을 민족구제의 방편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각 문예지들 특집란 마련 집중조명

한편, 춘원의 탄생 100돌을 맞아 연초부터 문단에도 찬·반 양론의 재평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학사상」(2월호)은 ‘춘원문학의 어제와 오늘’이란 제목의 특집을 마련, 한국 신문학의 기원을 연 이광수의 「무정」을 재조명한 이재선(서강대 국문과)교수의 「형성적 교육소설로서의 무정」 논문을 비롯, 김윤식 권영민 서영채 교수의 글을 실었다.

「근대소설적 문체의 확립자」(김우중) 「우리나라 현대작가 중 가장 큰 작가」(백철) 「근대의 지평에 놓인 거대한 하나의 기념비적 문사」(이재선) 「근대문학의 영원한 금자탑」(구인환) 등 찬사의 비평에서부터 「한문의 가치도 없는 껌데기 문학」(김우진) 「위선자의 문학」(김동석) 「무위무기력한 인물의 묘사」(최명익) 「혼합적 절충론과 자가당착」(김봉구) 등 비난의 글에 이르기까지 일제하부터 현대까지 춘원문학에 대한 상반된 시각의 글들을 한데 모은 권영민(서울대 국문과)교수의 글 「춘원문학을 향한 열아홉개의 화살」은 춘원문학에 대한 영욕의 역사를 살피게 한다.

또한 계간 「문학과 사회」도 최근 나온 봄호에서 춘원의 문학·사상적 행로를 “자아를 부

후대 평자들에 의해 “만지면 만질수록 그 증세가 더나는 상처와도 같다”는 절묘한 진행형의 표현이 그의 삶과 문학의 현재를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춘원의 탄생일을 즈음해 재평가 작업이 문단과 학계, 출판계를 아우르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생전의 春園모습.

정하고 세계를 긍정하는 노예의 선택”으로 파악하는 류철균(문학평론가)씨의 글 「육망의 근대적 형식」을 신고 있으며, 親日연구가인 김삼웅(반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씨도 최근 발간된 「친일파II」에서 최근의 춘원 재평가작업이 업적 부각에 치우쳐 있음을 비판한 「春園 李光洙의 친일행적」이라는 논문을 발표, 춘원문학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학계의 노력을 일깨우고 있다.

‘옹호론’과 ‘비난론’으로 양분 새삼 우리 근대문학의 상처를 확인시켜 주는 춘원에 대한 이같은 논의들은 그가 사망한 지 4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균형 감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평단 일각에서는 춘원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태인만큼 옹호와 비난은 그의 올바른 모습을 복원한 후에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복원 과정에서 親日을 지나치게 매도하거나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안 전집 개정판 출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이광수문학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논문수로는 모두 50여편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박사학위 논문은 「春園의 대승불교 사상연구」(최정석) 「이광수소설 연구」(구인환) 「이광수 문학비평연구-민족주의 문학사상을 중심으로」(송명희) 「이광수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이희춘) 등 12편이며, 석사학위논문으로는 「춘원문학의 기독교적 사상 분석」 「춘원작품에 나타난 불교적 인생관」 「춘원문학의 종교사상 연구」 「춘원의 계몽문학과 그 비판」 「춘원의 역사소설 연구-특히 현실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춘원의 詩연구」 등 40편에 이르는데, 찬반 양론에 상관없이 우리 근대문학의 선구자인 점에서 꾸준한 연구의 표적이 되어왔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전기나 평전 등 그에 관한 단행본들은 그가 근대문학 작가라거나 아직 온전하게 자리매김이 안되어서인지 몇권에 지나지 않는다. 박계주·곽학송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손질해 펴낸 「춘원의 생애」, 그리고 1천매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유일한 전기비평인 김윤식의 「이광수와 그의 시대」, 그리고 6·25 전 당시 이화여고에 다니던 그의 딸이 쓴 「아버지 춘원」 이상을 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광수의 작품·저작들은 예전에 삼중당에서 전집으로 간행되었다가 판권이 우신사로 넘어가 79년 5월 전10권으로 다시 나온 바 있고, 현재 올해안 발간 예정으로 개정판을 작업 중이다. 그밖에 역시 우신사에서 그의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17권의 단행본과, 9권의 문고본을 내놓고 있다.

— 정혜옥 기자